

社會學科의 현황과 社會學教育의 개선

全 兌 國
(江原大 社會學科)

1. 社會學科의 設置 : 抑制와 獎勵의 辨證法

우리나라에서 社會學科가 대학의 정식 학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46년 국립 서울대의 설립과 함께 서울대에 사회학과가 개설되면서였다. 그후 8년 동안 서울대 사회학과는 사회 학도를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그러다가 6·25가 지난 1954년에 경북대, 그리고 1958년에는 이화여대에 사회학과가 설치됨으로써 1950년대에 이르러 사회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3개 대학으로 증가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서울여대(1961년), 고려대(1963년)에 사회학과가 설치되었으며, 그 이후 사회학과 신설은 정부에 의해 억제되어 오다가, 1972년에 연세대에 사회학과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전반까지 전국적으로 사회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5개에 불과했다(서울여대의 사회학과는 1970년대 초반에 폐지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충남대(1975년), 부산대(1976년), 전남대(1977년), 전북대(1977년), 그리고 대구대(1979년) 등 지방의 5개 대학에 사회학과가 신설되어 사회학과는 그동안의 서울 중심적 성격을 탈피하여 全國的 性格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사회학과가 지방의 주요 대학에 빠짐없이 설치되어 명실공히 전국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전반에 와서였다. 1980년에 성균관대, 성신여대, 영남대, 청주대, 효성여대 등 5개 대학, 1981년에는 강원대, 계명대, 동아대, 서강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고려대 조치원 분교 등 8개 대학, 1982년에는 경남대와 경상대의 2개 대학, 1983년에는 덕성여대와 한양대 반월 분교의 2개 대학에 사회학과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80~'83년의 4년 사이에 사회학과는 전국적으로 새로 17개가 설치됨으로써 1946~1979년의 30여년 동안에 설립되었던 수(10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1975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던 사회학과와 新設 趨勢는 1984년부터 다시 둔화되었다. 1984~'89년의 5년간 새로 사회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동국대, 국민대, 아주대, 경희대 용인 분교 등 4개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 동국대는 사회개발학과와 명칭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

〈표 1〉 사회학과 설치 대학 수의 연도별 변화

구 분	1946	1958	1964	1972	1979	1983	1989
서 울 지 방	1 0	2 1	4 1	4 1	4 6	9 18	11 20
국 립 사 립	1 0	2 1	2 3	2 3	6 4	10 17	10 21
합 계	1	3	5	5	10	27	31

던 3 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회학과의 수적 팽창을 요약하면 앞의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에 사회학과가 개설된 것은 해방 후였지만, 본격적으로 사회학이 전파되고 사회학 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이후의 일이었다, 더구나 사회학과가 全國의 주요 대학에 빠짐없이 開設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회학과 역사는 외국의 선진 대학의 사회학과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의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학과들에 비해 매우 짧다. 아직도 사회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이 1946년에 서울대에 설치된 이후 '5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대가 유일한 대학원 교육 기관이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 경북대(1960년), 이화여대(1962년), 고려대(1967년)의 3개 대학에 석사과정이 신설되었다. 현재 석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은 전술한 대학 이외에 연세대(1976년), 충남대(1980년), 부산대(1981년), 성균관대(1981년), 전남대(1981년), 서강대(1985년), 전북대(1985년), 한양대(1985년), 강원대(1987년) 등이다. 그리고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은 서울대(1963년), 고려대(1967년), 이화여대(1976년), 경북대(1978년), 연세대(1979년), 부산대(1983년), 성균관대(1983년) 등 7개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학부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교육이 확충된 것도 역시 '70년대 후반 이후,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임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사회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불과 5개 대학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社會學에 대한 사회一般의 認識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사회학은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학문이라는 理念的 偏見에 시달려야만 했다. 사회학은 '사회주의 학문'이라는 이념적 편견은 극단적인 反共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적·문화적 풍토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을 위험한 反體制的인 것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순탄한 사회학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

는 사회학을 공부하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학문 자체가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就業 偏見에도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失業의 恐怖에 사로잡혀 있었던 당시의 이와 같은 생각은 사회학의 발전과 사회학 교육의 팽창에 실로 중대한 장애가 아닐 수 없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학과가 본격적으로 대학에 설치되게 된 데에는 이상의 두 가지 편견이 근본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衡衡의 偏見을 퇴치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동과 심각한 사회 문제의 발생이 社會學에 대한 肯定的 認識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社會學의 實用性에 대한 認識이 특히 미국 사회학에서 도입한 經驗的 調査方法과 構造機能主義의 展望에 힘입어 크게 제고되었다. 構造機能主義의 展望의 지배는 사회학을 '사회 변혁의 학문'이 아니라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학은 '사회주의' 학문이 아니라, '체제유지적 학문'으로서 그 성격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 조사 방법에 기초한 사회 조사=사회학이란 등식은 사회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정책 결정자에게 심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연출하였다.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60년 이후에 급속하게 추진된 近代化 政策과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학 자체 내에서의 正當化科學(Rechtfertigungswissenschaft)化 내지 社會工學化의 경향이 서로 친화성을 보임으로써 사회학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제고되어 사회학과 설립이 1975~1983년 사이에 먼저 국립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1983년까지 모든 국립 종합대에는 사회학과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독재 체제가 강화된 시기에 사회학과가 팽창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84년 이후에 사회학과 설립이 다시 억제된 데에는 먼저 근대화와 관련된 사회학 신화의 허

구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그 이유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학 자체 안에서 미국의 構造機能主義 사회학에 대한 批判이 '80년 이후 크게 일었으며, 특히 批判的 視點이 사회학을 지배하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變革과 分斷 구조의 克服을 위한 이론의 정립과 실천을 한국 사회학의 當面課題로 생각하는 세력이 전면에 부상했다고 하는 사회학 자체의 성격 전환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학 자체의 탈바꿈은 이념적으로 경직된 그리고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부에게 사회학을 체제 부정적인 학문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사회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또다시 정부에 팽배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학과 설립이 억제되었던 것이다.

2. 社會學科의 運營：二重的 植民化

우리나라 대학은 본질적으로 二重的 植民化 構造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외적으로는 미국 대학에 대한 우리나라 大學의 植民化와 내적으로는 서울 소재의 몇몇 명문 대학에 대한 地方大學의 植民化라고 하는 이중적 식민화의 구조 속에서 이들 명문 대학은 중간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미국 사회학이 직접 수입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학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미국 사회학의 지배는 먼저 서울 소재의 몇몇 명문 대학에서 확립되고, 연후에 지방대학으로 확산된다. 外的 植民化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들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로서 자리잡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추진되며, [內的 植民化는 이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훈련 받고 있는 지방대학 교수들에 의해 추진된다. 한편 내적 식민화의 구조는 매우 견고하여 교과과정의 편성과 교육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 총원의 인사 문제까지 관철된다. 이를테면 지방의 식민 대학의 교과목은 서울의 宗主大學의 그것을 모방하여 구성되고, 교육 내용도 서울의 그것을 답습하며, 인사 문제도 서울의 중추 대학의 명령에 따라 접근되는 실정이다. 또한 내적 식민화는 지방대학의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열망되기도 한다. 서울 소재 명문 대학의 교과목이 그대로 모방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능한 한 서울을 모방하는 것이 교수와 학생의 양쪽에서 요청됨으로써 內的 植民化의 구조는 더욱 鞏固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화의 구조는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명문 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에 교수의 교육 배경에서 나타난다. 교수의 학위 취득을 보면, 지방대학의 경우는 서울의 중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많고, 박사학위가 없는 교수가 대다수이다. 이들 학위가 없는 교수들은 대부분이 현재 서울의 중추 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이들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서울의 중추 대학에 구조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의 중추 대학의 경우에는 외국 대학, 특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많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에 교수의 교육 배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바로 二重的 植民化의 構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식민화의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學科 運營의 破行性의 문제 외에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학과는 대단히 原始的인 問題들을 몇 가지 안고 있다. 먼저 교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적정 교수 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문교부 인정 적정 교수 수인 9인 이상의 전임 교수를 둔 대학은 전국 31개 대학 중 경상대(9인)와 서울대(13인)의 2개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전임 교수가 2인인 학교가 1개, 3인인 학교가 5개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도 4~7인으로서 교수 총원의 절대 부족을 보이고 있다. 敎授充員 不足現象은 자연히 전임 교수의 강의 부담의 가중을 가져온다. 강의 부담의 가중은 교수 연구시간의 부족, 강의 내용의 부실, 자격 있는 강사 확보의 문제 등을 유발할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교수의 강의 부담의 실상을 보면, 1주 3과목 9시간 강의만을 하는 교수는 소수의 국립대학에 한정되며, 사립대 교수들의 경우 1주에 5과목 15시간 강의를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교수들의 과중한 강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교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층원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조교는 학교의 행정적인 일을 맡을 뿐, 실질적으로 교수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의 학과 운영의 문제로서 敎育施設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생들이 연구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대체로 학과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으며, 토론을 하거나 도서를 비치할 만한 장소를 가진 대학이 희소하다. 또한 학과별로 參考圖書 및 藏書가 不足하다. 과별 장서는 대부분 100 권 이내에 머물고 있으며, 심지어는 과별 장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資料處理나 現場研究 등의 機會나 施設의 不足이 들어질 수 있다. 퍼스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학과는 지방대학의 경우 매우 드물다. 시설 문제로서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대학의 강의실이 세미나나 토론에 부적합한 책·걸상을 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과목이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결부된 현상이다. 대학의 수업이 보다 연구에 접근하고 활발한 토론 속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설명 그리고 해결을 모색하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강의실이 세미나실로 개조되어야 한다.

3. 新社會學運動과 敎科課程의 改編

미국 중심적인 학문의 수용이 우리나라 학문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학의 경우 體制維持의 성향이 짙은 '美國 社會學'의 영향은 '80년대 초반까지 지배적이었다. 사회의 질서와 통합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構造機能主義와 사회 현상의 양적-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는 實證主義를 방법론적 원리로 삼는 이러한 '미국 사회학'이 우리나라 사회학의 중심을 이루게 된 데에는 다음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우리 사회가 美國社會를 發展의 模型으로 한 '근대화'를 추진하였다는 점, ② 冷戰과 分斷構造가 獨裁權力과 어울려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 극단적

인 反共 文化를 碇泊시켰다는 점, ③ 해방 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문의 발전이 美國文化의 流入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미국에서 훈련 받았거나 美國社會學에 指向되었으며, 따라서 미국 사회학 이외의 여타 사회학, 특히 맑스주의 사회학과는 교류가 없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학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빠른 사회 변화에 비해 敎科內容 변화의 遲滯現象이다. 구미의 각국에서는 사회 변동과 사회학의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회학이 각각의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변화를 주동적으로 이끌고 촉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학이 현실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敎科課程의 改編을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과과정의 개편 요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요구가 컸었지만, 이 요구를 교과과정 안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6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이에 상응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와 모순들이 나타나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의 社會學의 役割에 대한 논의가 '7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歐美社會學의 無批判的 受容을 反省함과 함께 韓國의 社會學의 定立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학회는 '70년대 초반 3차례에 걸쳐 서구 이론의 적합성의 문제를 사회학 대회에서 토론하였다. 그리하여 흔히 보편성으로 인식되어 받아들여져 온 미국 사회학의 적합성의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그동안 단순히 서구 이론으로 한국 사회의 현상을 조명해 보고자 했던 시도와는 달리 연구 대상을 한국 사회에 집중케 함으로써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가 '70년대말 이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社會史와 歷史社會學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그것이 기존의 主流社會學의 이론과 방법론의 부적절성으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해 주어 한국 사회학 특유의 研究主題 開發과 獨自의인 視角과 理論의 形成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구미의 사회학 일반을 배척하는 편협한 排外主義的 態度를 낳음으로써 구미 사회학이 성취한 진보적 성과, 즉 자본주의 사회의 분석과 비판의 통찰을 부정하게 되어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와 그것의 극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봉쇄하고 과거의 역사에로 도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80년대 들어와 사회학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1979년 제3공화국의 붕괴와 함께 일어난 民主化 열망은 사회학 내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독재 정권에 의해 극도로 억압된 맑스주의 내지 사회주의 이념을 교육과정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을 거부하는 '신사회학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 것이다. 新社會學運動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資本主義體制 및 冷戰과 分斷構造를 批判하고 民主化를 指向한 사회 변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批判的 社會學, 구미 사회학의 수입을 지양하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설명·전망하는 韓國的 社會學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교육과정의 개편 요구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신사회학 운동'이 일어난 시점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원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신사회학 운동'은 한국 사회학의 향후 발전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당시 격렬하게 제기된 교과과정에 대한 비판은 社會學教育의 理想的 指向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과거 전형적인 구미의 자본주의 사회학은 호된 비판을 받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적 관점이 호응을 얻었다.

'8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타도에 역점을 둔 급진적 사회학만이 '올바른 사회학'으로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1987년의 민주화 조치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敎科課程 改編 논의는 사회학의 현실 적합성과 사회 안정보다는 사회 변혁을 위한 사회학, 구미 사회학의 종속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한국 사회학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문제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기존 사회학의 분야 안에서도 갖가

지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망,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실로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교체는 자본주의 체제의 變革과 分斷 구조의 克服을 위한 이론적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과거의 지배적인 것들은 단호히 거부됨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지양에 역점을 둔 批判社會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당파성에 의거한 민중적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 주장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걸맞는 敎科課程의 改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달리 보면 사회학의 혼란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대간의 대화의 단절, 적대 관계의 형성, 교육에 있어서의 권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과정의 혁명적 변화는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80년대에 새로 설치된 대학들에서도 교수진 구성과는 관계없이 과거의 지배적인 체제에 준거해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新社會學運動과 관련해 도입된 새로운 교과목의 수도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현실적인 적합성이나 중요성이 낮아진 교과목이 제외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였고, 오히려 이전의 지배적인 교과과정이 학문 내에서의 요구와는 달리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理想的 閉鎖性과 抑壓性, 교수들의 사회학 이해의 固陋性, 그리고 內的 植民化의 충실한 운반자로서의 교수와 학생 등의 이유로 해서 새로운 요구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회학 교과과정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사회학 교육은 여전히 표준 미국 사회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에 걸친 거센 신사회학 운동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회학'을 표준으로 한 교과목들을 배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전국 31개 대학의 사회학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 필수로 공통 지적하고 있는 과목은 社會學概論, 社會學史, 社會學理論, 社會調查方法의 4 과목이며, 그밖에 社會統計, 社會階層論, 社會心理學 등이 주요 기초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은 政治社會學, 産業社

會學, 社會變動論, 社會思想史, 知識社會學, 家族社會學, 農村社會學, 都市社會學, 韓國社會論, 現代社會論, 比較社會論, 宗教社會學, 社會問題, 社會發展論, 組織社會學, 人口論 등이다.

이러한 교과목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목은 대부분 교과서식의 이름을 가진 강의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담당 교수가 누군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것이 되도록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때 그때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수용하여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는 사회학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교과목의 대부분이 표준 사회학적 관심에 기반하고 있는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비판적인 이론이나 시각을 다루는 과목도 찾아 보기 어렵고, 새로운 이론적·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과목도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의 사회학 교과과정의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인 ‘運動指向性’ 또는 ‘變革指向性’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3세계 및 아시아 여러 사회 그리고 東歐의 社會主義 社會에 대한 관심은 교과목 상으로 전혀 발견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사회학의 유용성을 느끼게 하고, 따라서 사회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학의 일상화를 위한 교과과정도 찾아보기 힘들다.

표준 사회학적 관심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학 교육의 문제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일한 이름의 과목이 대학에 따라 수강 시기가 다르게 개설되고 있다. 이를테면 社會變動論이 어떤 대학에서는 2학년 2학기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다른 대학에서는 2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 포섭 관계에 있는 과목들이 아무런 체계나 선후 관계 없이 병렬적으로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4. 社會學教育의 改善을 위하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사회학 교육은 二重的 植民化라고 하는 構造的 問題와 세미나

실, 학과 도서관 등의 교육 여건의 문제 그리고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회학을 요구하는 교과과정의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교과과정의 문제의 해결은 곧 동시에 이중적 식민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교과과정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敎科課程의 改善

교과과정의 개선은 교과목의 유형을 새롭게 구분하고 조직하며, 敎科目的 開設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와 주제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시도된다.

①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교과목의 類型과 主題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회학 세미나 또는 사회학 연습은 교과목의 유형을 가리키는 것인데, 마치 이것들이 교과목의 주제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형도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교과서 중심의 一般的이고 標準化된 강의가 교과목의 지배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강의는 학생들의 主體的이고 創造的인 思惟와 視角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와 같은 토론 형식의 수업 방식을 많이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교과목은 그 기능에 따라 기초 과목, 강의, 연습, 세미나, 실습, 클로키움, 특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강의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며, 기초 과목과 연습은 1,2 학년을 위해 그리고 세미나와 실습은 3,4 학년을 위해, 클로키움은 4 학년을 위해 개설된다. 특강의 경우는 학기 혹은 학년마다 교수의 研究 關心과 研究成果 그리고 사회적 관심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기초 과목을 제외하고는 각 과목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 세미나, 강의, 실습, 연습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중심은 이들 유형 중 세미나와 연습에 두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목의 유형별 특성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과목>: 전공 기초의 필수 과목으로서 최

소한의 과목으로 한정하며, 학기마다 되풀이하여 개설된다.

〈연습〉: 강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며, 주로 분담 지도 조교 제도를 활용하여 지도한다.

〈강의〉: 주제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강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연습을 동반한다.

〈실습〉: 학습한 이론과 방법을 스스로 적용해 보거나 견학을 통해 확인해 보는 과목이다.

〈특강〉: 주제에 관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과목이다.

〈클로키움〉: 졸업 논문과 관련하여 주제에 따라 지도 교수별로 개설되며, 개별 지도가 이루어진다.

② 교과목의 조직에 있어서는 먼저 동일한 하나의 과목을 복수의 교수가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제목의 과목이 복수로 개설되어 상이한 교수에 의해 담당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視角과 主張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교수들에게는 자신의 理論의 獨創性을 경쟁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며 또한 학과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가 그대로 세미나로서 개설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식 수업에서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됨으로써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학문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반 지도제를 실시한다. 분반 지도 조교는 대학원생으로서 교수의 연습 과목을 도와 학생들을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도야와 취업의 양면에서 인접한 다른 학문과의 연관성을 중시하고 부전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敎科目的 開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분야와 주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먼저, 다양한 비판적인 이론이나 전망을 다루는 과목들을 많이 개설한다. 이것은 冷戰과 分斷이라고 하는 현재의 우리 사회의 構造的 制約을 타파하는 데 공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사회학의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한국 사회학의 國際化

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 外國 사회를 研究하고 比較하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국제 관계를 수립하고 국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시각의 附鎖性과 固陋性을 克服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北韓 사회를 연구하는 과목을 다양한 주제로 개설한다. 기존의 북한 연구는 대체로 남북간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 체제의 優越性을 확인케 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편협한 체제 경쟁적 시각을 극복하여 科學的 立場에서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학이 통일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갖는다 할 것이다.

또한 오늘의 南韓 사회를 연구하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歷史社會學의 입장에서 먼 과거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오늘을 규정하고 있는 어제를 연구하는 과목은 거의 없다. 이를테면 유신 시대나 5공 시대, 6공 시대를 연구하는 과목들을 개설한다.

그리고 그때 그때 나타나는 중요한 이론적 및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세미나 과목들을 많이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상 생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現象들을 다루는 과목들도 開設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별로 사회학 교육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교과목에 지역 사회의 요구와 학과 교수들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리하여 대학에 따라 연구 중점이 다른 교육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회학 교과목은 社會學入門, 社會學史 및 社會學理論, 方法論, 歷史社會學 및 社會思想史, 產業社會學 및 社會構造論, 政治社會學 및 國家論, 知識社會學 및 이데올로기批判論, 社會變動論 및 社會發展論, 生活世界 및 未來社會論, 環境 및 社會生態學, 女性 및 性的 社會學, 社會運動 및 社會政策論, 比較社會論 및 外國社會研究, 社會統制論, 기타 특수 분야 등 15개 분야

로 나누어 편성한다. 그리하여 각 분야 안에는 상응하는 다양한 제목의 기초 과목, 강의, 세미나, 실습, 연습, 특강, 콜로키움 등이 개설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과목명은 구체적인 제목으로 명시한다. 사회학사 및 사회학 이론의 분야를 예로 든다면, 기초 과목으로서 ‘社會學理論의 發達史’를 개설하고, 강의 과목으로서는 ‘社會學史의 方法’, ‘古典社會學理論’, ‘現代社會學理論’, ‘韓國社會學史’, ‘批判社會學’ 등이 개설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름의 과목, 이를테면 ‘미드와 슈츠에 있어서 社會性的의 構成’, ‘맑스와 베버: 資本主義 批判’, ‘맑스의 社會理論’, ‘에밀 뒤르켐의 社會學’ 등이 특강이나 세미나, 연습 또는 콜로키움의 주제로 개설된다.

2) 教育與件의 改善

상술한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과목의 개설을 허용하는 재정적·인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교수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많은 강사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모든 교수가 강의와 연습에 조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교의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학과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에는 세계의 주요 연구 잡지가 구비되어야 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社會指標를 알려주는 각종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와 복사기를 설치하여 발표와 토론을 위한 자료가 신속하게 그리고 열가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미나실의 증가가 뒤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강의실도 세미나실로 대폭 改造되어야 한다. 강의를 위한 대형 강의실과 계단 강의실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존의 강의실을 세미나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책·결상을 세미나 탁자와 의자로 교체한다. 세미나 탁자는 토론 그룹의 의도와 성격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의 開設과 廢棄가 쉽게 이루어지고 교과과정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